

## 종합 의학학술지의 현황과 과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박 찬 일

### 서 론

학술지의 사명은 새로운 지식을 같은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의학학술지도 다른 학술지와 다를 바 없다. 새로운 지식으로는 전문인이 수행한 새로운 연구논문이 그 으뜸이며 특정분야에 관한 최신 지식을 모아 쓴 종설도 전달해야 할 중요한 대상이다.

의학학술지를 기능에 따라 흔히 종합(일반) 의학학술지(general medical journal)와 전문 의학학술지(specialty journal) 또는 특수전문 의학학술지(subspecialty journal)로 분류한다. 저자와 독자가 모두 전문 또는 특수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의학자들인 경우를 전문 또는 특수전문 의학학술지라고 하면 의학 전반에 걸친 논문이 투고되고 여러 의학분야에 종사하는 의학자들이 독자층을 이루는 경우를 종합 의학학술지라 하겠다.

의학의 세분화에 따라 전문 의학학술지의 종류가 증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국내의 저자와 독자 층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 의학학술지는 국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운명이 밝지만은 않다는 것을 인식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종합 의학학술지의 대부분은 의과대학 학술지(또는 논문집)이며, 의사와 관련된 몇몇 협회에서 발행되는 잡지가 여기에 속한다. 의과대학 학술지의 경우에는 투고자격을 아무리 개방하더라도

투고자의 대부분이 해당 대학소속의 구성원에 국한되기 쉽고 독자의 범위를 넓히기도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잡지들 이외에는 각계 각층의 의학분야를 망라하는 종합 의학학술지가 별로 없다.

학술의 양적인 발전은 정보매체를 넓힌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진실한 정보를 교류해야 한다는 학술지의 당위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의학학술지에는 개선되어야 할 요소들이 적지 않다. 학술지 발행의 구성요소로는 학술논문 투고자(저자), 서지학(書誌學)적 매체를 통한 학술정보 수요자(독자), 잡지의 경영주라 할 수 있는 발행인, 그리고 편집인이 있으며, 학술지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 네가지 요소가 저야 할 몫의 비중은 같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의학학술지의 양적인 현황을 소개하고 학술지 발행 각 요소들의 중요성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의학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 1. 우리나라 의학학술지의 현황

의료단체의 홍보를 위한 잡지, 종합병원이나 의료계/의학계 소식을 담은 잡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잡지까지 포함한 의료/의학 정보의 서지매체를 의학잡지라고 한다면 의학학술지는 연구논문과 의학 신지식에 관한 종설의 게재를 생명으로 하는 정기 간행물이라 할 수 있다.

전종희 교수에 의하면 1983년에 발행되던 국내의학잡지에는 대한의학회의 분과학회와 준학회들이 발행하는 전문 의학학술지 57종, 의과대학 학술지 및 논문집 22종, 연구소 또는 의료관련기관 학술지 14종,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협회 또는 의사단체가 발행하는 잡지 14종, 그 외에 군진의학잡지, 종합병원잡지, 상업성 의학학술지 등 19종을 합한 총 126종이 있으며, 그 중 의학학술지로 볼 수 있는 것은 약 110종이다. 또한 1984년 부터 1995년 사이에 창간된 의학잡지가 약 98종에 이르며 그 중 의학학술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70여종으로서 1995년 현재 국내 의학학술지는 모두 180여종에 달한다. 의학학술지 중 종합 의학학술지는 50여종이며 그 대부분인 32종이 의과대학 학술지 또는 논문집이고 협회지, 군진의학잡지 및 상업성 의학잡지가 나머지를 차지한다.

해방직후의 초창기 우리나라 의학잡지는 상업성을 지닌 학술지 및 의과대학 학술지와 같은 종합 의학학술지가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분업화 성격을 띠게 되면서 점차 전문분야별로 의학학술지가 창간되기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에 들어서서는 지식수준과 의학학술지가 특수전문분야로 더욱 세분화하여 수준 높은 연구논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학문 발전과정에서 종합학술지의 성격이 변천할수록 점차적으로 입지가 좁아진다.

의과대학 학술지는 각 의과대학이 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방편의 하나로 사명감을 갖고 발행한다고 볼 때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의과대학 학술지외에 현재 국내에서 발행되는 대표적인 종합 의학학술지로 대한의학회 공식잡지인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잡지는 다음 몇가지 상황으로 보아 발전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생각한다. 첫째, 게재논문의 범위가 여러 의학분야를 망라하는 종합학술지이므로 독자층이 비교적 두텁고, 둘째, Index Medicus에 등재된 영문학술지이므로 세계적으로 읽히기를 바라는 논문을 모으기가 유리하다. 셋째, 모든 의학분야의 의학자들이 peer reviewer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잡지의 성격

을 널리 알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넷째, 논문심사 및 저자수정과정에서 외국 잡지에 투고할 때보다 빠르다는 지역적 잇점이 있다. 다섯째, 전문의시험 자격과 관련한 부담이 없어 공정한 peer review가 가능하며, 여섯째, 발행인인 대한의학회로부터 안정된 재정적 지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의학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저자의 양심과 철저한 심사제도, 저자에게 feed back을 줄 수 있는 독자의 아량과 적극성, 독자들이 읽고 싶은 잡지가 되도록 하는 편집인의 노력 등 잡지발행 구성요소들 모두의 능동적 참여가 필요하다.

## 2. 잡지발행 구성요소로서의 저자, 독자, 발행인 및 편집인

학술지는 모두 저자, 독자, 발행인 및 편집인 등 4가지 요소에 의해 발행된다. 이것은 종합학술지와 전문학술지 모두에 공통적이므로 「전문학술지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임정기 교수 집필내용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필자가 평소 느끼고 있던 생각을 적는 것으로 그치려고 한다.

### 2-1. 저자

의학학술지의 투고규정(안내)에는 연구논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틀과 그 틀의 각 부분 즉 초록,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안(고찰), 결론, 참고문헌, 표 및 그림(또는 사진)이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설명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학술지의 편집인은 접수된 원고를 해당 잡지의 편집규정에 맞게 체제 변경을 할 수 있으나 저자가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어느 잡지에 투고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고 그 잡지의 투고규정에 맞추어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소양에 속하는 사항이다.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논문은 편집인과 논문심사인으로 하여금 저자의 학문적 진실성까지 의심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투고할 잡지의 선택은 투고하려는 논문의 내용과 독자의 수준 및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저자의 권한이다. 이를테면 간질환과 관련된 내과적 또는 외과적 논문의 경우 간학회지가 일차

적 선택대상이겠으나 간 질환을 전공하는 극히 제한된 수의 독자이외의 범위까지 읽히기를 원한다면 독자의 범위가 보다 넓은 내과학회지나 의과학회지 또는 종합 의학학술지에 투고할 수도 있다. 편집인은 다만 우수한 논문의 저자가 투고를 바라는 학술지가 되도록 노력할 뿐이다.

투고할 잡지를 결정하면 그 잡지의 성격과 투고규정에 따라 논문을 작성한다. 고찰은 저자 자신이 얻은 결과들을 종합하여 저자가 주장하려는 결론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과정을 서술하는 지면으로서 논리적이어야 하고 자신 있어야 한다. 논문심사인이 제시한 이견에 대하여 명백하고 논리적인 답변 또는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논문이 되기 위해서 함축성 있는 표와 정확하고 뚜렷한 그림 또는 사진이 첨부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국내 의학학술지 발전을 위한 workshop(대한 의학회, 1989)에서 조승렬 교수는 「저자의 우위」를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발전의 중요한 저해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저자가 자신의 논문에 대해 평가받는 것을 불쾌하게 여긴다든지, 승진이나 전문의고시 자격을 갖추기 위해 급조한 논문을 투고하면서 시간적으로 촉박함을 편집인에게 알려 게재여부 결정에 부담을 주는 행위 또는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투고하는 행위 등은 대표적인 저자의 몰염치라고 하겠다. 저자, 독자, 편집인 등 학술지 발행 구성요소들의 중요성에는 우열이 없기 때문이다.

### 2-2. 독자

잡지의 위상을 높이는데 있어서 독자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독자는 자신과 관련있는 의학정보를 얻기 위해 잡지를 읽지만 논문내용이 저자의 의견과 다를 때 이를 저자에게 문의하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의학학술지에는 저자와 독자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교량역할을 하는 지면을 배려하는 잡지가 거의 없다. 이것은 편집인의 책임에 속하는 부분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의학자가 발표한

논문내용을 독자들이 자신의 연구논문에 적극적으로 인용하는 마음가짐이다. 역학적인 내용을 담은 논문조차 국내자료를 인용하기에 인색한 것은 낯선스고 부끄러운 일이다. 실린 논문이 자주 인용되는 잡지를 좋은 잡지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의학학술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내 의학자의 연구논문을 서슴없이 인용하는 아량이 필요하다. 이는 의학자들의 학문적 상호신뢰에서 출발하며 저자들로 하여금 더욱 가치있는 연구를 하도록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논문심사 과정에서 국내자료 인용을 권고하는 것은 국내문헌의 독자범위를 넓히는데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 2-3. 발행인

발행인은 잡지 발행기관의 주체로서 잡지발행의 경영주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잡지발행의 재정에 관한 책임을 진다. 이 글에서는 학술지 발행에 소요되는 경비와 이를 충당하기 위해 가능한 수입원을 알아봄으로써 발행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학술지가 발행되기 위해서는 1) 학술논문 심사비, 2) 심사를 의뢰하고 저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는 등의 우편료, 3) 원고의 체제검토, 문장개선, 오자교정, 잡지내용 lay-out, 일반사무 등을 수행하는 직업인 인건비, 4) 잡지 제작비 및 5) 잡지 발송비가 소요되며, 잡지제작비는 조판비, 편집비, 제판비, 인쇄비, 용지대, 사진분해비, 표지제작 및 제본비, 공과금 등으로 구성된다. 발행부수가 많을 수록 용지대, 제본비 및 발송비의 비중이 높아짐은 물론이며, 발송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벼운 용지이면서 깨끗하고 선명한 인쇄를 위한 용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발간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입원으로는 1) 저자가 부담하는 게재료, 2) 잡지 발행기관(의과대학, 학회, 협회 등)의 자체 보조비, 3) 발행기관 외부로 부터의 잡지발간 보조비, 4) 광고비, 5) 잡지판매 수익 등이 있다. 그러나 국내 의학학술지는 아직 모두 비매품이며, 외부로 부터의 보조도 매우 적기 때문에 저자부담금과 발행기관 자체보조비 및 광고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초의학 학술지의 경우에는 광고비 확보가 수월하지 않고 학회 자체보조비도 부족한 형편이므로 저자가 받는 재정적 부담이 적지 않다.

궁극적인 그리고 이상적인 경비충당 방법은 잡지를 판매하는 것이다. 충분한 판로를 확보하는 것은 곧 독자범위의 확충이고, 독자를 충분히 확보하려면 독자들이 읽지 않으면 안될, 독자들이 읽고 싶어하는 잡지를 만들기 위한 배전의 노력이 요구된다. 독자를 확보 관리하고 편집인을 감독하는 것은 발행인의 몫이다. 「최신 의학」과 같은 일종의 상업지는 한 때 두터운 독자층을 가진 종합 의학학술지였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 급격한 사향길을 걷고 있다. 재정적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의학 전문지식을 가진 편집인을 두지 않았고 논문심사제를 운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학의 세분화에 따른 투고자의 의식변화에 미리 대처하는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는 발행인의 안이함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 하겠다.

#### 2-4. 편집인

학술잡지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의 편집인의 역할에 대하여는 「의학학술지의 발행인과 편집인」제목의 서정욱 교수 집필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 3. 의학학술지의 국제화

학술지의 국제화란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는 잡지, 내용을 국내외 의학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잡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학술적 가치가 높고, 국제 공인 용어로 쓰인 논문을 담아, 예정된 기일에 어김없이 출간 배포하는 잡지이어야 하며, 국제 의학학술지 목록과 학술논문 색인집에 등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3-1. 논문의 학술적 가치

학술적 가치가 있는 논문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저자의 학문적 수준과 관계되는 것이며, peer review를 통하여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최

근 저명한 외국잡지에 실리는 우리나라 의학자들의 논문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망이 밝다.

#### 3-2. 출간일 엄수

학술잡지가 예정된 기일에 어김없이 출간되어야 하는 것은 정기간행물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임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투고논문의 수가 충분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발행인과 편집인의 나태도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 3-3. 국제 의학학술논문 색인집 등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의학학술논문 색인집에 등재된 의학학술지가 극히 적어서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기를 바라는 우수한 논문인 경우 모국어 아닌 영어로 쓰는데 따른 고충이 있다. 그러므로 국내 의학학술지들이 Index Medicus, SCI(Science Citation Index)와 같은 공신력있는 색인집에 등재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우수한 논문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없으면 국내 의학학술지는 소위 우수한 잡지에 게재되지 못하는 수준 낮은 논문을 묶어 놓은 논문철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최근 교수평가제도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평가의 척도로서 연구업적의 양적인 측면외에 SCI에 등재된 저명한 잡지에 게재된 연구업적을 질적 측면의 우수업적으로 삼으려는 경향을 보여 국내 의학자들의 연구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의학학술지의 국제화를 더욱 어렵게 하는 이율배반적 측면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

#### 3-4. 의학학술지의 양식

의학학술지는 개개의 특성에 따라 편집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있다. 규정에 맞게 작성하지 않은 논문을 투고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저자의 소양에 관한 문제이지만 잡지마다 서로 다른 양식을 요구함으로써 저자에게 연구이외의 부담을 주는 것도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8년 Vancouver에서 몇몇

영문 의학학술지의 편집인들이 모여 투고양식 일원화의 필요성에 합의하면서 소위 Vancouver style을 제안하였고, 그 후 이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한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라는 협의체에서 수차례의 토의를 거쳐 1991년 제 4차 개정판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의학학술논문의 작성에서 투고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기술되어 있으며, 참고문헌 인용 및 참고문헌 열거방법이 고전적 양식인 Harvard style과 크게 다르다. 이 두가지 양식을 절충한 제 3의 양식을 비롯하여 아직도 여러가지 양식이 쓰이고 있으나 현재 전세계 의학학술지 색인집의 기준이 되고 있는 Index Medicus는 Vancouver style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 양식을 채택한 학술지가 가장 많으며, 국제적 호환성을 높이고 잡지의 국제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마침 국내에서도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하여 대한의학회가 국내 의학학술지 편집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편집인 협의체가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건의되고 있다.

- 1) 학술지
  - (1) 국내 학술지발행 현황조사
  - (2)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전산화 및 색인집 발간
  - (3) Index Medicus, SCI 등에 등재되기 위한 공동노력
  - (4) 학술지 평가기준 설정
  - (5) 투고규정, 편집 등의 학술지발간 실무에 관한 사항 협의
  - (6) 국내 학술지의 정기적 평가를 통한 질적 향상
  - (7) 의학용어에 관한 사항
- 2) 논문작성
  - (1) 논문작성에 관한 정기적 교육

- 3) 논문심사
  - (1) 논문심사에 관한 교육
  - (2) 논문평가지침 설정
  - (3) 논문심사 교류 및 게재 교류

그 밖에 학술지 편집사항에 관한 News letter 발행, 편집보조원 양성, 우수논문 표창 및 홍보, 재정적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방안 모색 등이 있으며, 모두 국내 의학학술지의 질적향상과 국제화를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 결 론

종합 의학학술지를 포함한 우리나라 의학학술지의 현실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아래 사항들을 권장한다. 첫째, 전문지식을 지닌 그리고 편집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편집인을 두고, 편집보조원, 전문 artist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발행인이 적극적 자세를 취함으로써 투고량과 독자층의 확충을 위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 둘째, 편집인은 저자와 독자의 직접, 간접적인 학술정보 교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국내 종합 의학학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과대학 학술지는 투고자와 독자범위의 확충이 쉽지 않음을 직시하여 논문투고를 개방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적극적 자세를 취해야 하며, 넷째, 의학학술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해 나아감으로써 국제 의학학술논문 색인집 등재를 꾸준히 추구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공동노력을 위하여 국내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조승렬. 우리나라 의학잡지의 당면과제. 대한의학회 발행, 국내 의학학술지 발전을 위한 워크샵 보고서 중에서. 서울:대한의학회 1989; 7-20.  
 서정욱. 우리나라 의학잡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한의학회 발행, 의학학술지 발전을 위한 Workshop 중에서. 서울 :대한의학회 1992; 35-44.

Lock S. The future of Medical Journals. Br Med J  
1991 (Cited by 서정욱)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Br Med J 1991 ; 302 : 338-41.